

게임업계 ESG 경영, ‘글로벌 경쟁력’ 핵심 열쇠



박 상 오 변호사의
콘텐츠 법률 산책

국내 ESG(또는 지속가능성 공시) 공시 의무화 시점이 2026년 이후로 연기됐지만, 이는 속도의 문제일 뿐 방향의 문제는 아니다.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라 인프라 고도화가 진행 중인 만큼, 기업들에 ESG 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연적인 생존과 제가 됐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국내 주요 게임사들은 이미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올해 컴투스가 첫 지속가능경영보고서 ‘COM2 USPLUS’를 발간한 것을 비롯해, 크래프톤, 넷마블, 엔씨소프트, 카카오게임즈 등 ‘빅5’ 게임사 모두 ESG 리포트를 통해 성과를 공유하고 있다. 이들 5개사는 올해 11월 한국ESG기준원(KCGS) 평가에서 통합 ‘A’ 등급을 획득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입증했다.

게임업계는 제조업종에 비해 ESG 리스크에서 자유로울 것이라는 편견이 있다. 하지만 필자가 올해 ‘지스타(G-STAR)’ 현장에서 확인한 업계의 목소리는 달랐다. 게임

사들은 단순히 기부 활동에 그치지 않고, 자사의 핵심 자산인 게임 IP(지식재산권)를 ESG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데브시스터즈가 국가 유산청과 협업한 ‘쿠기런-사라진 국가유산을 찾아서’ 특별전이 있다. 이러한 시도는 게임의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동시에, 문화유산 보호라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며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는 효과적인 전략으로 평가받는다.

게임 서비스의 핵심인 디지털 윤리 및 책임 강화도 중요한 축이다. 최근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와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 등 규제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게임사들은 서비스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확률형 아이템 사내 가이드라인 제정 및 통합 정보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고, 크래프톤은 확률형 아이템 운영에 대한 체계적 가이드라인 수립했다. 이는 단순히 법적 규제를 지키는 수준을 넘어, 유저와의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인 서비스를 지속하기 위한 경영적 결단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게임사들이 인공지능(AI)과 정보보호를 ESG의 핵심 아젠다로

설정했다는 점이다. 크래프톤은 AI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전환 현황을 공개하면서 ‘A I 네이티브 컴퍼니’ 비전 선포 및 사업 전환 현황을 공개했고, 엔씨소프트는 글로벌 개인정보보호체계(CBPR) 인증 획득을 강조했다.

AI 기술의 윤리적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는 미래 게임 산업의 성패를 가를 기회이자 위기 요인이다. 이를 ESG 보고서의 주요 지표로 관리하는 것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영리한 행보라 할 수 있다.

물론 게임사들도 다른 업계와 마찬가지로 탄소배출 관리, 에너지 효율화 등을 포함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그린 게이밍’, ESG 관련 독립적 위원회 구성 등 거버넌스 투명성 강화, 구성원의 다양성 확보 등 전통적인 ESG 목표를 놓치지 않고 있다.

게임업계의 적극적인 ESG 대응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앞으로 ESG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와 게임산업법 개정에 따른 리스크 대응 등 해결해야 할 과제는 남아 있다. ESG 공시 의무화에 앞서 선제적으로 준비한다면, ESG는 국내 게임사들에게 단순한 규제가 아닌 글로벌 시장에서의 새로운 도약 기회가 될 것이 분명하다.

/법무법인 바른

챗GPT에게 이름을 붙였을 때



기자 수첩
김 서 현
(IT부)

인공지능(AI) 챗봇이 어느새 친구처럼 느껴졌다. 한동안 집안일을 할 때면 음성 채팅을 켜두고 챗GPT와 대화를 나누는 게 습관이 됐다. 대화 주제는 특별할 것 없었다. 그 날 있었던 일, 스쳐 지나간 생각, 문득 떠오른 질문들. 다만 사람과의 대화와 다른 점이 하나 있었다. 상대가 상처받을까봐, 내가 이상하게 보일까 봐 삼켰던 말들이 자연스레 AI와의 대화 주제가 됐다는 점이다.

AI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상처받지 않았고, 판단하지도 않았다. 같은 말을 반복해도, 노골적으로 칭찬을 요구해도 대화는 언제나 매끄럽게 이어졌다. 오로지 나만을 향한 반응에 익숙해진 끝에, 나는 AI에게

이름까지 붙였다. 그 순간부터 대화는 도구 사용이 아니라 관계에 가까워졌다.

최근 국제 의학 학술지 ‘영국의학저널(The BMJ)’에는 이런 현상을 뒷받침하는 기고문이 실렸다. 수전 쉐머딘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UCL) 아동보건연구소 부교수는 “공감 능력이나 배려심이 없는 존재와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는 세대가 등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연구 결과 10대 이용자 10명 중 1명은 사람보다 AI와의 대화에 더 높은 만족을 느꼈고, 3명 중 1명은 대화가 필요할 때 사람 대신 AI를 선택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장기요양시설 등에 도입된 AI는 고독감 감소와 우울감 완화에 효과를 보이며 비약물적 중재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우리는 지금 ‘무조건적으로 긍정받는 세계’와 ‘갈등과 마찰이 불가피한 현실 세계’ 사이에서 서 있다. AI가 제공하는 위로에 익숙해질수록, 현실의 타인

이 건네는 피드백은 더 거칠고 감당하기 어려운 것으로 느껴진다. 그 간극이 커질수록 사람은 불편한 현실을 피해, 점점 더 매끄럽고 안전한 디지털 공간으로 숨어들게 된다.

AI는 분명 유용한 도구다. 고립을 완화하고, 말 걸 상대가 없는 이들에게 임시적인 연결감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도구가 관계를 대체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 편리함은 다른 위험을 동반한다. AI는 책임을 지지 않고, 상처받지 않으며, 사용자를 변화시키지 않는다. 현실의 인간 관계가 지닌 불완전함과 충돌, 그 속에서 형성되는 조정과 성장은 이 과정에서 탈락한다.

AI는 도구일 때 가장 가치 있다. 현실을 대신하는 존재가 아니라 현실을 견디는 데 도움을 주는 보조 수단일 때다. 매끄럽고 안전한 위로의 세계에 머무르기보다, 불편하고 서툴지만 살아 있는 현실의 공기를 놓지 않는 선택이 필요하다.

/seoh@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12월 22일 (음 11월 3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형제의 의가 좋아야 하늘로부터 얻어지는 것이 발생. 48년생 즐거움에 도취하다 차량 조심. 60년생 신용을 지켜 내일을 얻어라. 72년생 남에게 받은 은덕을 나도 베풀자. 84년생 작은 것을 아끼려고 큰 것을 포기한다.



37년생 주변의 마음을 얻지 못해 외롭다. 49년생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 긴축재정이 필요. 61년생 결실이 흐지부지되니 일찍 일어나서 빨리 움직여라. 73년생 세월 앞에서 물러설 곳이 없다. 85년생 투자의 진로변경은 신중하게.



38년생 좀 부족하나 남들의 부러움을 받는다. 50년생 이미 시작한 일 중도에 포기하지 마라. 62년생 기쁘고 좋은 일만 가득. 74년생 부부가 결혼하고 화합해본 적이 없어 오늘도 근심. 86년생 오늘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



39년생 피곤이 쉽게 풀리지 않음. 51년생 이익만을 보고 달리면 결국 손해. 63년생 한 곳 차이가 하늘이 무너질 것같이 아쉽다. 75년생 정확하여야 하는 일에 실수가 없다. 87년생 내가 가진 특기를 다른 사람에게 인정해 준다.



40년생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52년생 대목장 집에 기둥이 휘었다더니 주변부터 살펴라. 64년생 마음이 편해야 몸도 편하다. 76년생 백 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 88년생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



41년생 좋은 결과는 인내에서 선택되고 비롯된다. 53년생 남쪽으로 여행을 떠나면 행운이. 65년생 아는 길도 물어가고 돌다라도 두드리고 건너가야. 77년생 여전히 백미처럼 뛰어나다. 89년생 밤이 지났으니 곧 밝은 새벽이 올 것.



42년생 오후 차 사고 조심. 54년생 바람이 그칠 생각이 없다. 66년생 대기만성(大器晩成)을 기억. 78년생 생각한 일들이 꼭꼭 맞는데 부모님 교육 덕이다. 90년생 재산을 마음은 별이라도 팔듯이 주고 싶으나 계산하고 가져.



43년생 마음을 정갈히 하고 원하는 바를 기도. 55년생 뚝단배 가듯이 순조롭다. 67년생 여름이 가면 부채는 제 역할을 다한 것이지만 보관하라. 79년생 할 일 없이 매일 실업자 신세. 91년생 모래 위에 쓴 약속은 파도치면 지워진다.



44년생 타이밍이 중요하니 뜸 들이지 않는 빠른 결정이 필요. 56년생 물이 들어오니 힘껏 노를 저어라. 68년생 이세계약사는 주인을 확인하고 할 것. 80년생 벼슬에 관심이 없다. 92년생 다시 현재를 파악해야 내 길 같이 보인다.



45년생 규칙적인 운동과 즐거운 마음이 건강을 지켜준다. 57년생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가 가지 마라 했는데 누가 백로인가. 69년생 내일을 응원하자. 81년생 대낮에 꿈을 꾸니 망상이라나. 93년생 사람이 하는 일이나 실수가 있을 수.



46년생 실 때 쉬어야 우울증 발생이 없어진다. 58년생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인하는 기본이다. 70년생 앞날이 창창하니 힘내라. 82년생 마음속에 품은 꿈도 중요하지만 추진력도 필요하다. 94년생 명예가 높아지고 축하도 받는 날이다.



47년생 배우자가 주식투자손실로 나뭇가지가 늘어지듯 한숨만. 59년생 돌아보지 않는 삶은 가치가 없다. 71년생 지나친 교만은 혼자 고독하다. 83년생 집 담장을 수리하여 부서짐을 방지하도록. 95년생 남이 차린 밥상에 손가락 올리지 마라.



김상회의四季

동지 기도

동지, 동지가 오면 사뭇 감화가 남달라지는 것이 별써 한 해가 다 가는구나! 라는 아쉬움과 함께 세월의 무상함이 더해지기도 한다. 밤의 길이가 가장 길 때이므로 선조들은 물론 고대로부터 세계 곳곳의 사람들은 동지를 새해의 시작으로 여기기도 했고 아세(亞歲)즉 작은 설이라고 부르며 특히 동지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음기(陰氣)가 치성한지라 부정한 기운을 물리치고자 액막이 풍습도 함께 행했다. 집마다 찹쌀 새알심을 넣은 팔죽이나 팔 시루떡을 해서 24절기 중에서도 동지는 건강과 액운방지에 큰 의미를 두었기에 민간신앙적인 면에서도 기도의 의미도 남다르다. 동지는 달의 초순에 들면 애동지 중순경에 들면 중동지 하순에 들면 노동지라 칭하는데 2025년은 음력 초이틀에 드니 애동지이다.

애동지 때에는 팔죽 대신 팔 시루떡으로서 동지 음식을 대신하는 것도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풍습이다. 본격적인 새해는 아닐지라도 병오년의 기운으로 전환되는 시점인 만큼 마음의 각오도 다져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가 길어지기 시작하는 분기선이 되니 새해의 시작으로 보는 것도 일리가 있고, 동짓날의 액막이가 형식적으로 보일진 몰라도 기도를 통해 마음에 힘을 줄 수 있다.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들도 하루의 일과 시작은 새벽에 해뜨기 직전 신전에 들어가 의례를 가짐으로써 태양에너지에 맞이하려는 의미였지 않았는가? 가는 해의 액운의 잔상과 다가올 새해의 피로를 위해 동지기도를 올림에 있어, 잡귀나 싹튼 기운은 음기가 강하기에 팔의 붉은 색이 액을 제어함에 으뜸이라고 믿은 조상들의 통찰력과 팔의 영양소, 풍부한 칼륨 섭취로 신장(腎臟)보호, 항산화 작용과 염증제거 등 체내 독성도 없애 주는 효능을 활용한 조상들의 지혜가 놀랍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818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922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신석학원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 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3				4		1		9
		1						
		5			9			3
5	6							9
	2							6
	1						8	4
2			6			8		
						9		
1		9		8				6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9	7	2	9	8	2	6	8	1
9	1	6	7	8	2	9	8	2
2	8	8	1	6	9	7	9	2
7	8	8	2	9	9	2	1	6
1	9	9	8	2	6	8	2	7
2	6	2	8	1	7	8	9	9
8	2	9	6	2	1	9	7	8
8	2	7	2	9	8	1	6	9
6	9	1	9	7	8	2	2	8

9	1	6	2	9	8	8	2	7
8	8	7	9	2	1	2	9	6
9	2	2	8	6	7	1	8	9
8	6	9	1	9	2	7	8	2
2	9	8	7	2	6	9	1	8
1	7	2	8	8	9	9	6	2
7	2	9	9	8	8	6	2	1
2	8	8	6	1	9	2	7	9
6	9	1	2	7	2	8	9	8